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7.20원 하락한 1,127.70원에 마감
-------------	------------------------------

25일 환율은 전일대비 7.20원 하락한 1,127.7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2.40원 내린 1,132.50원에 개장했다. 오전중 환율은 글로벌 위험선호심리 회복에 1,130원대 초반으로 하락한 후 1,130원 선을 하회하였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고 미국 인프라 투자법안 합의 소식에 환율은 하락세를 유지하다가 전일대비 7.20원 하락한 1,127.70원에 마감하였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1,017.60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132.50	1133.00	1126.80	1127.70	1128.8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023.82	1023.82	1015.96	1017.89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354.05	1354.24	1344.66	1345.42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	0.02	-0.11	0.21
	결제환율(수입)	0.2	0.97	1.71	3.15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위험선호 회복과 반기말 네고 유입에... 1,120원대 중반 중심 등락 예상
--------------	--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2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127.70원) 대비 0.70원 내린 1,127.20원에서 최종 호가 되었다.

금일 환율은 글로벌 위험선호 회복과 반기말 네고 유입으로 하락이 예상된다. 수출업체는 반기말이 가까워지자 적극적으로 달러 매도수요를 쏟아내기 시작하였다. 바이든 인프라 투자안 합의와 연준 위원의 물가 상승 우려 진화 발언이 호재로 작용해 위험선호심리가 회복하고 뉴욕증시는 상승하였다. 연준이 눈여겨보는 개인소비지출(PCE)이 예상에 부합하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주었

다. 5월 PCE 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4% 오르고 전년 대비 3.9% 올라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다. 글로벌 위험선호 분위기가 외국인의 국내증시 순매수로 이어질 경우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수입업체 결제수요와 해외투자 자금 집행 등 실수요 매수는 환율 하락폭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124.00 ~ 1130.00 원
체크포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2451.27 억원■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0.70원 ↓■ 美 다우지수 : 34433.84, +237.02p(+0.69%)■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11.96 억달러■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3276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